

15대 총여학생회 1년 사업방향 및 계획(초안)

경기에서 여학생운동을 펼쳐나가는 총여학생회가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나 IMF를 통한 외세의 경제침탈에 주권국가의 허울마저 거덜나고 민생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고 거기에 이땅의 여성들의 삶은 허주연씨 살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계속적인 주한미군의 만행, 정리하고 영순위 등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반외세 자주화투쟁의 성지'인 총여학생회와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개척하는 전여대협, 청년여대생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권 5년동안 부정비리만을 일삼고 외세에 나라를 다 팔아먹고 주한미군이 제나라 여인들을 강간당하고 집단폭행해도 일언반구도 못하고 굴종하더니 오히려 정당한 투쟁에 나선 여학우들을 공권력으로 인권을 처참히 유린했던 사대매국, 반민중, 반여성적정권이었던 김영삼을 사법처리하는 투쟁에 청년 여대생이 일떠서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정립이 미약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신념을 가지고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학생운동 내의 부문운동으로서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많은 이론과 정견으로 여학우들을 자주적인 주체로 세워내는 것이 아닌 성담론정도로 여학생운동을 전략시키고 있으며 여학우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미약한 사상적 토대에서 기층의 과여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하고 조직적 토대마저도 그 기반이 약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학우 대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학일꾼들이 투쟁과 실천속에서 여학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여대협을 자신의 조직으로 받아안고 여학우들 속에서도 총여학생회가 진정한 대중조직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하고 폭넓게 풀어갈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해야 하겠다.

1. 일상사업

기층의 여학생회(부)가 건설되어있지 않고 자기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막혀있는 여학우들과의 연결통로를 마련하고 좀 더 다양한 여학우들의 요구들을 모아내고 과단위와 총여학생회가 유기적인 결합으로 사업을 풍부하게 고민하여 여성문제를 풀어갈 것에서 일상사업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여성문제를 공유하고 전체학우들의 문제의식을 높여낸다. 더욱이 학습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일상교양으로 재생산 구조를 마련하여 과여학생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운영위

아직 세단위밖에 없는 과여학생부장들로 계속적인 주체마련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운영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가져가야할 것이다. 이속에서 여학생회에대한 고민을 높여내고 운영위의 위상을 세워내어 과여부의 1년의 자기사업내용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과여학생회의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한다. 친목도모정도의 여학생모임을 안착화, 활성화시켜 모임을 내용을 가지고 묶어낼 수 있는 고민을 심도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 회의 속에서 담보해야할 것이다.

1학여대협

여학생회 체계가 미약함에따라 기층부터 튼실하게 여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임을 가져가고 교양중심으로 쉬운 부분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으로 사람이 남을 수있는 사업이다. 작은 실천거리(화장실유인불 선전)을 내오는 것도 좋겠다.

의식조사사업; 설문지, 의견수렴함

여학우들 속에서 살아숨쉬는 총여학생회,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총여학생회, 진정한 여학우들의 조직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할 것이다. 기층조직이 미약함에 따라 어느정도 막혀있는 여학우들과의 연결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의식조사사업에 대한 고민을 깊게 가져가서 내용있는 설문으로 이것을 통해 화장실 선전과 여백지의 내용을 고민.

설문- 총여학생회 인식, 사업, 성의식조사, 학내성폭력 ?

연구사업 ?

경기 여학생운동의 역사? , 자주적 여학운

화장실유인물선전

작년에있었던 화장실 유인물의 성과를 받아안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여학우들과 함께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화장실 선전물을 가져간다. 성인식에 대한 것으로 화장실유인물을 통해 중점적으로 풀어가 여성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여백지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여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져간다. 단순히 총여의 알림이나 사업을 보여주는 데 국한시키지 않고 정기적인 간행으로 여백지를 통해서 여성문제를 전문적이고 심도깊게 고민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여백지 사업을 통해 여학단위 두리로 사람들을 묶어세우고 여백지 사업을 안착화하여 편집부가 꾸려져 한달이나 두달에 한 번 나올 수 있도록 할 것. (올해? 내년..)

여학생 휴게실

여휴의 공간에 대한 고민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관리문제에서부터 학우들을 만나가는 공간으로, 교양선전물을 지속적으로 비치하고 붙인다던지..

하방사업

생활하방에서부터 사업하방(?)까지.. 제대로 고민!! (내용....)

일꾼들이 학우대중을 만나가는 데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학우들을 만나가는 속에서 진정한 우리사업과 내용을 고민하고 학우들 속에서 힘받고, 여학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한다.

교양사업

지속적인 학습교양체계 정립으로 집단 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전문적 내용을 심도깊게 고민하고 경기안에서 여학생운동의 합의확산을 꾀한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의 여학생운동을 합의할 수 있도록한다.

교양거리(학습내용), 지도주체, 지도체계에대한 고민이 먼저 진행되어야한다. ; 1학여대협 월별로 거리를 찾아도?

여성학, 여성문제의 기원, 올바른 연애관(성과사랑), 취업문제 현황과 문제점, 성상품화, 제국주의 성침탈, 북한여성, 성폭력, 한국사회 구조와 여성문제

가족과 여성, 여성과 노동, 법과 여성현실, 매매춘과 기생관광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2. 대중사업 `대중투쟁

대중사업은 폭넓은 학우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우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보탬이될 수 있도록하는 사업이다. 무작위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이고 보여주기식, 달력중심의 치뤄내기식의 사업으로 가져간 한계에서 벗어나 한 해의 일관성있는 중심방향과 내용을 틀어쥐고 매사업속에서 녹여낼 수있어야한다. 일상적이고 꾸준한 의'조직화 과정의 총화점으로 대중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의'조직화 된여학우들을 준비과정 속에서 더욱 튼튼히 총여두리로 묶고 개별화된 의식들을 총체적으로 풀어내고 단련시키는 장, 주체 단련의 장이 될 수 있어야한다. 조직된 여학우들을 중심으로 다른 학우들을 조직하고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인식을 줄 수 있으며 그 계기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총여학생회, 여학생회 강화와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할 것이다.

새터

해오름식

여성자주학교

대동제

거북체전

; 여성문화제?

올해의 대동제는 한 번 놀고 마시는 장이 아니라 경기구성원이 하나의 지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서 기간의 성과와 정형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차원에서 대중사업의 공간으로 가져갈 것이다. 총여에서도 대동제 안에서 여학우들과 함께할 것을 찾아가야한다.

미세기 영화제

정기적으로 영화제를 가져가 학우들과 영화를 통해 사회전반적인 문제에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기간 미세기 모임총화와 미세기 강화발전의 장으로 만든다.

더 고민해볼 것 - 윤금이씨 추모사업?(윤금이씨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
반미주간을 설정해서 한다던지..
졸업반지사업 (정리), 취업특강?

정치정세투쟁

총여학생회가 성에만 국한되어져서 사업을 풀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변혁운동에서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사상을 틀어쥐고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중과 함께 투쟁하는 조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여학일꾼들이 정세를 주도적으로 인식하여 흐름을 놓치지않고 여학일꾼이 주동적이고 헌신적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가져나가야할 것이다.

반외세자주, 반파쇼 민주, 조국통일 투쟁

수요집회(정신대문제 해결투쟁), 금요집회(주한미군 철수, 한미행협 개정투쟁)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지속적으로 투쟁을 가져나갔던 것은 경기의 모범이다. 올해에는 핵심

사업으로 수,목,금 투쟁을 정상화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모순을 피부로 느끼면서 각계각층의 민중들과의 공동연대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실천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 제기된다. 일정정도 관성화되어있고 많이 고민하고 있지 못하지만 참여가 먼저 모범을 만들어나가자.

자주교류사업 ?

3. 민중연대사업

민중여성의 삶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사회에서의 여성문제를 공유하여 서로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직적 연대와 강화를 꾀하는 활동이다. 참여학생회에서는 연대활동으로 기지촌활동, 농민학생연대활동을 해왔는데 단위가반이 미약함으로인해 연대활동을 수행하는 데있어 조직적인 연대사업을 가져가기가 힘들었다. 여성농민, 기지촌여성과의 연대사업의 정형을 창출하고 내실있게 가져갈 수 있는 치열한 고민이 요구된다. 올해에는 특히나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으로 더욱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데서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반의세 자주의 기치높이 기지촌여성과의 활동을 내실있게, 정신대할머니들과의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해온 연대사업을 발전시켜 참여만이 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닌 과단위에 서도 높은 고민의식으로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참여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야할 것이다. ?

기지촌활동

농활

주체발굴, 교양선전, 교양학교가 제기된다. 주체들을 활동속에서 단련시켜내고, 지속적으로 챙겨내야한다.

고민- 정신대할머니, 주한미군범죄최근절운동본부의 후원회 모집 ?

4. 학자사업

역신과제

1. 간부혁신

사상학습과 투쟁중심

여학운 역시 전체운동에 복무해나가는 부문운동으로서 변혁운동에 대한 관점이 서있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학우들을 만나고 민중들을 만나갈 수 없다. 또한 자주적 여학운의 사상으로 튼튼히 주장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성학에 전문적(?)이더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시기별 자기내용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전체운동의 흐름을 놓치지않도록 정세인식'토론에 박차를 가해 토론의 정형을 만들어내고 참여학생회, 여대협을 중심으로 사상, 조직, 실천적 단결을 이루어내도록한다.

학우와 민중중심으로

학우들을 만나가는 데 있어 자신없어하고 참여에만 틀어박혀있는 경우가 많다. 참여에만 있으면서 회의만 가져간다고 해서 사업이 고민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 학우들 속에서 함께하는 조직으로 단위를 강화하려면 골간체계가 미약해서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학우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일꾼의 모습으로 주체를 혁신해나가야할 것이다.

동지에

'참여에서 일하면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 학생운동내에도 있는 봉건성으로 학단위 일꾼들도 여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도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간부라면 다른데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이아니라 간부들과 학우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여학생운동조직을 굳건히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힘든만큼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더욱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있도록 하고 집단 속에서 함께 고민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2. 여학생회 건설,강화

과여학생회 건설, 강화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과여학생회(부)의 단위 자립자활력을 높여내는 방도를 고민해야한다.

여학우들 자신의 사회적 처지와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받아안아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대중조직인 총여학생회와 그 기층단위 여학생회의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것은 단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한데서 나타나며, 경기안에서의 과단위 여학생회(부)의 모습은 단순한 친목도모 정도의 형태이거나 모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써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그것은 과단위 여학생회(부)가 자기내용을 틀어쥐고 활동을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하고 총여에서도 기층단위로의 구체적인 지도사업이 미약하여 단위주체를 올바르게 세워내지 못하며,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그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단위 여학생회를 튼튼히 세워내기 위해 여학생운동 전반의 조직운동의 내용과 중요성, 방식에 대한 이론과 원칙을 기층에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3. 미세기

영화비평모임 미세기는 96년 말에 발족해서 올해로 3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세기는 정기적인 영화상영과 토론을 통하여 경기공간안에 문화창달에 힘쓰며,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목적을 회칙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임을 꾸려나가고 새내기들을 받고 영화제를 가져가는 데 있어 일정 혼란과 힘들음을 겪어왔다. 총여학생회에서 미세기 짱의 위치, 지위와 역할 문제에서부터 총여와의 관계(?), 총여에서의 지도사업까지 미세기의 성격과 내용, 운영방도를 고민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며, 경기에서 영화를 통한 대학문화와 비평토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임을 안착화해야 하겠다. 영화를 매개로, 미세기 모임과 영화제를 통해서 여학우들 뿐아니라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하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한다.

기간동안에 나서는 문제

1. 적절한 주제마련

모임이 제대로 활동하는 데에는 탄탄한 주체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모임을 운영하는 데있어서 '주체를 세우기위한' 과정으로 주체를 세워냈다. 올 한해 새내기사업과 미세기모임을 잘 가져가서 4기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내용상의 연계지점

여성문제라는 특수성을 지닌 총여학생회와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내용상의 연계점이 필요하다. 작년에는 자금지원에서만 아니라 미세기를 총여가 어떻게 받쳐주고 지원해야할 지 총여에서도 구체적으로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영화제하는 데있어 연계지점을 찾으려다보니 미세기 안에서 정해놓은 영화를 바꾸어 상영하기도 하고, 미세기의 총화가 총여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짱과 함께 고민했던 것이 미세기원들 속에서 다시 공유,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데서 관계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는 이것을 극복하기위해 미세기 모임 속에서 총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고 영화선정, 주제설정, 토론준비를하는 데 있어 회의를 가져가고 그 전과 후 미세기 짱과의 모임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연계점을 찾기위해 총여의 대중사업 공간에서 영화제를 페미니즘이나 반미, 정신대 영화로 제안이 들어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